

HEADLINE NEWS

프로야구장 건설 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변지역 동시 개발 전략 추진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는 2008년까지 건설할 예정인 지역연고 프로팀 야구경기장 건설의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개발전략은 야구장만 건설할 경우 활용시간이 경기가 열리는 날(1년에 81일)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5억 3500만 달러에 이르는 야구장 건설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市당국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부지에 식당가와 같은 상업용도 개발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워싱턴 D.C.의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콜로라도주 덴버市에서 미개발 지역에 프로야구장을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건설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로 탈바꿈시킨 사례가 있다.

(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8/11/AR2005081102061.html?nav=rss_metro)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 조성으로 낙후된 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 ② 도시계획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애틀랜타)

도시환경

- ③ 도시하천 녹화로 도시 재활성화 계획 (로스앤젤레스)
- ④ 전자전기 장비 쓰레기 처리를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 촉구 (미국)

도시교통

- ⑤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경찰차의 점멸등 및 사이렌 교체 (플로리다주)
- ⑥ 전자식 택시 승강대 설치 (방콕)
- ⑦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해 페리 승객 확보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市)
- ⑧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주차요금 대폭 인상 추진 (중국 심천)
- ⑨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대중교통 승차권으로 보상하는 신용카드 발급 추진 (샌프란시스코)
- ⑩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 고속도로 건설계획 (캘리포니아)
- ⑪ 상습 난폭운전자 차량에 차량 위치, 속도 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 (미시건주 오클랜드 카운티)

사회복지·문화

- ⑫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보급 (애리조나주)

행재정

- ⑬ 고유가로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 증가 (애틀랜타)

①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 조성으로 낙후된 도심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는 낙후된 도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를 조성하고 있다. “E Street 보행자중심 가로 조성 사업(E Street pedestrian corridor project)”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장국은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걷고 싶은 거리를 제공하고 기존의 상업기능을 활성화시켜, 컨벤션센터나 박물관 등 새로운 시설 유입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국은 이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6년 중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www.adn.com/news/alaska/story/6877537p-6773841c.html)

② 도시계획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대도시권 도시계획 기구인 ARC(Atlanta Regional Commission)는 지역 내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일간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선출직 공무원, 신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용도지구위원회 위원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주된 교육내용이 계획수립 절차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용도지구계획 방법론, 교통 및 상수도 계획, 각종 회의운영 방법, 효과적인 리더십배양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 교육과정에는 토지이용계획과 학교입지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특별주제로 다룬다.

(www.atlantaregional.com/regionaldata/August2005.html#Item4)

③ 도시하천 녹화로 도시 재활성화 계획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市를 가로질러 흐르는 로스앤젤레스 강을 녹화하여 도시 재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강은 1930년대 초에 홍수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벽 위주로 건설된 도시하천이다. 市는 홍수방지 기능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 콘크리트 벽을 허물고 주변을 공원으로 녹화하여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市는 하천 주변을 따라 공원과 녹지를 공급해서 도심 주거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도심 재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www.latimes.com/news/local/la-me-river12sep12,0,5325668.story?track=tohtml)

④ 전자전기 장비 쓰레기 처리를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 촉구 (미국)

미국 전자전기 장비업체들은, 전자전기 장비 쓰레기(e-waste)를 수거하여 재활용할 때 적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이 卅정부와 지방정부마다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하며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 촉구하였다. 현재 캘리포니아, 메인, 메릴랜드州가 전자전기 장비 쓰레기 처리 규정법을 가지고 있으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州와 메인州는 전자전기 장비 쓰레기 수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반면, 메릴랜드州는 공급자인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컴퓨터장비 재활용법(National Computer Recycling Act)”과 “전자장비 쓰레기 재활용촉진과 소비자 보호법(Electronic Waste Recycling Promo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등을 의회와 상원에 상정했다.

(news.com.com/2100-1041_3-5855434.html)

5]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경찰차의 점멸등 및 사이렌 교체 (플로리다주)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 당국은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순찰차량의 점멸등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간에는 빨간색의 식별성이 파란색에 비해 높고, 야간에는 반대로 파란색의 식별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 도입되는 점멸등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낮에는 빨간색으로, 밤에는 파란색으로 바뀐다. 또한 점멸등의 전구는 기존의 전구보다 밝은 빛을 오랫동안 낼 수 있는 LED(Light-Emitting Diode: 發光素子)로 교체하여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이렌의 경우, 밀폐된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사이렌 소리 톤을 낮출 계획이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장비 교체가 운전자 및 순찰대원의 안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sptimes.com/2005/08/08/State/Difference_between_da.shtml)

6] 전자식 택시 승강대 설치 (방콕)

태국 방콕시는 버튼 하나만 눌러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전자식 택시 승강대를 설치하고 있다. 주로 교통 혼잡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이 택시 승강대는, 승객이 승강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이 신호가 택시운영 관리자에게 전달되어 각종 자료를 토대로 승객에게 택시 도착 예정시간 및 차량 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택시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다. 현재 이미 150여개 택시 승강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05년 11월까지 시내 주요 지점에 지속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시당국은 이러한 시설 도입을 통해 택시 승객의 편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승객을 찾아 헤매는 택시의 비생산적인 연료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s.ninemsn.com.au/article.aspx?id=59262)

7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해 페리 승객 확보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市)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市를 중심으로 운행되는 Harbor Bay 페리는 1개월 전 승객 감소로 페리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으나, 이후 승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지금은 운임수입이 43.5%나 증대되는 등 페리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페리 운영회사, 市당국, 수상교통위원회의 공조로, 페리를 이용해 통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무료탑승 행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페리를 호감 가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 전환을 하면서 승객 수가 급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市당국은 수상 대중교통 수단을 하나의 주요한 도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www.contracostatimes.com/mld/cctimes/news/transportation/12498833.htm)

8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주차요금 대폭 인상 추진 (중국 심천)

중국 심천은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기존 주차요금을 평균 1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 개최 후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 이번 계획은 주차요금 인상폭과 함께 좀더 세분화된 주차요금 부과 구역 및 시간대 설정이 특징이다. 우선 도심부내 주요지점 및 지하철노선 주변 지역은 1급지로 지정되어 주차요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며, 요일별과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市당국은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주간시간대에 33,437대, 야간시간대에 27,925대가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市의 주차요금 수준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市는 이러한 요금 부과방식 도입을 위해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도시 사례를 검토했다.

(news.xinhuanet.com/english/2005-09/07/content_3454400.htm)

9 신용카드는 왜 제휴하여 대중교통 승차권으로 보상하는 신용카드 발급 추진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BART 당국은 최근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BART 승차권 및 주차권 등으로 보상해 주는 신용카드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신용카드는 항공사 신용카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닐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ART는 이를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RT 관계자는 이 신용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제휴 은행으로부터 150만 달러의 선불금과 함께 매년 최고 15만 달러에 이르는 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RT는 현재 제휴은행을 물색 중이며, 2005년 말에는 실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contracostatimes.com/ml/d/cctimes/12504299.htm)

10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 고속도로 건설계획 (캘리포니아)

미국 남가주 지역은 도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터널형 장거리 지하 고속도로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터널을 이용한 지하 고속도로는 건설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가주의 도시들은 날마다 더해가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긍정적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회는 최근 남가주 지역에 8km 이상의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도심 통과차량을 우회시킴으로써 시내 진입을 막아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www.latimes.com/news/printedition/la-me-tunnel18sep18,1,6146887.story?ctrack=1&cset=true)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④ 상습 난폭운전자 차량에 차량 위치, 속도 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 (미시건주 오클랜드 카운티)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 카운티에서는 상습 난폭운전자 차량에 차량 위치, 속도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RIVE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60명의 운전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 장치에 저장된 운전행태 기록은 매달 담당 경찰에게 보내져 운전자가 변화된 운전행태를 보이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장치에는 과속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내는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이 프로그램은 12주 안전운전 교육, 50시간 사회봉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www.detnews.com/2005/commuting/0508/26/A01-294070.htm)

④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보급 (애리조나주)

미국 애리조나주 농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마을단위로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의 경우 500명 이상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중 25%가 초고속 인터넷 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도시와 떨어진 농촌마을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지역 보편적 서비스 평등법(Rural Universal Equity Act of 2005)”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전화처럼 모든 사람에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www.azcentral.com/news/articles/0918ruralinternet.html)

고유가로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 증가 (애틀랜타)

미국에서는 최근 고유가로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애틀랜타 지역 비영리 단체인 “Clean Air Campaig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개월간 애틀랜타 지역 13개 회사에서 1,800여명의 재택근무자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회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회사 측도 사무실 공간을 줄일 수 있어 재택근무자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사의 경우 재택근무를 위해 필수적인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사무실내 컴퓨터 구입비용 및 운영비 감소, 사무실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오히려 재정적 이득이 있다고 밝혔다. (www.computerworld.com/hardwaretopics/hardware/story/0,10801,104078,00.html)